

르노 익스피리언스 ‘밸류 업’... XM3·QM6 등 상품성 강화

르노코리아 자동차 기자간담회

고객 접점 확대... 내수 시장 공략
XM3 연식 변경·QM6 가격 인하
드블레즈 사장 “새로운 가치 선사”

신차 부재로 내수 부진에 빠진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판매 회복을 위해 고객 접점 확대와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다.

르노코리아는 내년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기존 모델들의 상품성 강화와 함께 종합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업데이트한 두 번째 버전 ‘밸류 업’을 선보인다. 특히 현대차·기아와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부분변경을 거처며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밸류 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 익스피리언스는 르노코리아가 한 단계 더 높은 고객 만족을 향해 고객과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이 3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형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의 올해 두 번째 업데이트 버전인 ‘밸류 업’을 설명하고 있다.

함께하는 여정’이라며 “제품, 커넥티비티, 서비스 등 르노코리아가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르노코리아 만의 가치를 고객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새로운 영업 마케팅 조직 구성과 함께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르노 익스피리언스는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상품·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시승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체험 기회 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다. 르노



르노코리아가 31일 ‘르노 익스피리언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르노 시티 로드쇼’를 서울시청 인근 프레스센터 1층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르노 시티 로드쇼’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경기 기흥,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코리아는 지난 3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첫선을 보인 르노 익스피리언스 이어 약 6개월 만에 두 번째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 르노 익스피리언스는 XM3, QM6 등 주요 모델을 상품성 측면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세그먼트별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드블레즈 사장은 소개했다.

특히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연식변경

과 부분변경 등을 통해 차량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르노코리아는 상품성은 개선한 반면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르노코리아는 쿠페형 SUV XM3는 2024년형으로 연식변경 한다. XM3 라인업 중 66%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1.6GTe 모델에 신규 ‘인스파이어’ 트림을 추가한다. 해당 트림은 RE 트림에 1열 통풍시트와 2열 열선 등

290만원 가량의 옵션을 추가 적용했으며, 360도 어라운드뷰 모니터 등의 첨단 기능도 새롭게 적용했다. 그러나 가격은 2680만원으로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

QM6는 가성비를 한층 극대화 한다. QM6의 전체 판매량의 77%를 차지하는 LPE 모델은 고객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트림별로 가격 인하에 나선다. QM6 LPE LE 트림은 91만원 인하된 2840만원, 가장 인기트림인 RE의 경우 3170만원으로 195만원 하향 조정했다.

이 외에도 XM3, QM6, SM6 등 모든 모델에 초미세먼지 고효율 필터가 적용되며, LED 도어스팟 램프도 추가된다. 또 이번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고 차량 개폐 및 원격시동 등을 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스마트위치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이번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강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오는 10월 9일까지 ‘르노 시티 로드쇼’를 전국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온, 세계 최고 리튬이온전도도 고체전해질 개발 삼성·LG 등 친환경 新가전 총출동

LLZO 균일 제어... 안정성 우수 고품질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대

SK온이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전도도를 갖는 산화물계 신(新) 고체전해질 공동개발에 성공했다.

리튬이온전도도는 전해질 내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로 속도가 빠를수록 배터리 출력이 커지고 고속으로 충전된다. SK온은 이번 개발로 전고체배터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온은 단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희정 교수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관련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스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19.9))’ 표지논문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SK온과 단국대 공동 연구팀은 해당 기술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해당 고체전해질은 리튬이온전도도를 크게 높이고, 대기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SK온-단국대 연구팀은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인 Li-La-Zr-O (리튬-란타넘-지르코늄-산소·LLZO)의 첨가물질 조정을 통해 리튬이온전도도를 기존보다 70% 개선(1.7mS/cm·센티미터당 밀리시멘스)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또 리튬이온전도도가 높아지면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SK온-단국대 연구팀은 이를 LLZO의 미세구조를 균일하게 제어하는 기술로 극복했다. SK온은 “고체전해질은 통상 수분(H₂O)과 이산화탄소(CO₂)에 취약해 장시간 대기에 노출되면 전해질로서의 기능이 떨어지지만 이 고체전해질은 매우 우수한 안정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용량도 크게 늘릴 수 있다. 특히 액체전해질을 사용한 리튬이온배터리(LiB)의 최대 사용 전압은 최대 4.3V

이지만,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을 사용할 경우 최대 5.5V까지 늘어난다. 이를 배터리 제작에 적용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배터리 용량을 최대 25%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고체전해질은 현재 NCM 양극재를 기반으로 하는 전고체배터리 외에도 차세대배터리로 꼽히는 리튬-황 배터리와 리튬-공기 배터리를 전고체화할 수 있는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SK온은 현재 개발 중인 리튬-황, 리튬-공기 배터리는 LiB와 같이 액체전해질을 사용하는데 이 고체전해질을 적용해 전고체배터리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최경환 SK온 차세대배터리연구센터장은 “SK온은 압도적인 미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대배터리 분야의 성장 기회를 선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

IFA2023 업체간담회

삼성 “스마트싱스 등 의미있는 연결” LG “싱큐 이용한 통합 경험 제공”

IFA2023이 개막 준비를 끝마쳤다. 친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래 기술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IFA2023은 30일과 31일(현지시간) 업체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첫날 지멘스와 밀레, 로버트 보쉬와 로보라에 이어 31일에는 삼성전자와 AEG 등이 자리를 마련했다. LG전자와 한국엔컴퍼니 계열사인 모델솔루션 등도 주요 기술을 발표했다.

◆ 신가전 총출동

IFA2023은 친환경 정책에 대응한 고효율 가전과 함께 다양한 신가전이 첫선을 보인다.

LG전자는 ‘모두를 위한 즐거움과 지속가능한 삶’을 테마로 ‘LG 지속가능한 마을’을 꾸렸다. 소형 모듈러 주택 ‘LG스마트코티지’로 친환경가전을 소개하고, 주변에는 스탠바이미 Go를 유럽에 처음 선보이며 아웃도어 생활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싱큐홈 전시 공간에서 UP 가전 2.0도 글로벌에 내놨다. 장애인도 가전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업 키트 체험 가능하다. 특히 무선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M과 건조기 성능을 대폭 높인 새로운 시그니처 세탁건조기도 공개했다.

삼성전자 역시 비스포크 세탁건조기와 더 프리스타일 2세대 등 주요 신제품과 함께 에어컨 실내기에서 냉매와 물을 열교환하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온수를 만드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EHS도 내놨다.

◆ 초연결도 현실로

스마트홈, IoT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삼성전자 삼성프드를 소개하는 공간



LG전자 싱큐홈

몽친 단체 HCA가 최근 표준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IFA2023에서도 ‘초연결’ 지원 발표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환경, 사람, 미래 관점에서 ‘의미있는 연결’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친환경은 물론 초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삼성전자는 IFA2023에 스마트싱스를 활용한 AI절약 모드를 중심으로 ‘의미있는 연결’에 초점을 맞췄다.

ABB와 SMA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과 함께 미래형 친환경 주거 구축 모습도 소개했다. 6G 이동통신 개발을 주도하고 보안 시스템인 ‘삼성 녹스’도 함께 소개하며 기술적인 우위도 자랑했다. 대표적으로 삼성프드가 있다. 16만 개 이상 레시피를 제공하고 삼성헬스를 활용해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소비자 건강을 지켜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HCA 멤버사인 LG전자 역시 싱큐홈에서 싱큐를 이용한 통합 경험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13리터 6기통 ‘스키니아 슈퍼’ 공개... “韓 시장 공략 강화”

스키니아코리아 기자간담회

에콜루션 2.0 등 서비스 솔루션 제시

스키니아가 효율을 크게 개선한 엔진으로 국내 상용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스키니아코리아는 31일 서울 홍제동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스키니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엔진을 탑재한 스키니아 슈퍼와 함께 에콜루션 2.0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 솔루션 전략을 공개했다.

새로운 스키니아 슈퍼는 새로 개발한



새 엔진을 통해 스키니아 슈퍼는 전작 대비 연비를 8%나 줄였다. 마모도 크게 축소돼 수리 부담도 낮췄다는 설명이다. 승차감도 개선했다. 브레이크 열 효율성도 50%에 달해 효율과 친환경성서도 잡았다.

서비스 솔루션 ‘에콜루션’도 2.0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은 물론 운전자 교육과 운행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가입 대상도 덤프 트럭으로 넓혔다.

이날 행사는 이번달부터 스키니아코리아 지휘봉을 잡은 아르코 케틀라 대표(사진)도 참석했다. 품질 관리 전문가로, 처음으로 아시아에 왔다.

케틀라 대표는 ‘스키니아 슈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표하며 “한국 고객들이 스키니아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